

태무 쇼핑몰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말 쇼핑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 구매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연말 쇼핑 예산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먼저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CPI)가 작년 똑같은 시간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2%보다 높았고, 1960년 직후 무려 3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딜로이트 컨설팅 모임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었다. 딜로이트는 '근래에 1,900명의 미국 성인을 타겟으로 오프라인 통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0% 이상이 연말 쇼핑 지출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혀졌다. 이어서 '응답자 가운데 49%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출 크기에 충격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면서 '작년 똑같은 기한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이 21%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출 덩치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 이번년도 연말 쇼핑 매출이 작년 동기 예비 7~2%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딜로이트는 전 세계를 강타한 제공망 병목 현상이 소비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이 발생한 직후 전 국민적으로 제품 수요가 줄어들자, 회사들 역시 상품 제공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을 것이다. 허나 팬데믹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신속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회사들의 공급량이 구매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제공망 병목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딜로이트는 '며칠전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려 64% 이상이 품질 정황을 경험했다'면서 '연말 쇼핑 계절을 맞아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급난이 해소될 경우 [테무쇼핑몰사이트](#) 인플레이션 역시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했다.